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오늘 찬양대원 임명

오늘 주일예배 시에 2002년도 교회의 각 찬양대에서 봉사할 찬양대원을 임명하는 임명식을 갖게된다. 오늘 임명받는 찬양대원들은 12개의 찬양대에서 정해진 예배시간에 찬양으로 봉사하게 된다.

2002년도 교회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책임지게될 찬양대원들은 먼저 기도와 감사함으로 임명받아 예배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모든 성도가 은혜 받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찬양대원의 명단은 주보에 간지로 삽입되어 있다.

## 농어촌 100교회 운동 후원자 신청 접수 시작

우리의 농어촌은 급속한 산업화와 WTO체제 결과로 젊은이들이 도시로 빠져나가 매우 어려운 현실에 접해있다. 이러한 어려운 농어촌의 교회를 도와 현지의 교역자들이 안심하고 전도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로 106개의 교회를 도울 수 있었다.

교회는 2002년에도 농어촌 100교회 운동을 계속하여 나가기로 결정 하고 내년도에 농어촌 100교회운동에 참여할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 농어촌 100교회 운동에 참여할 성도는 사무국으로 문의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교회는 1996년부터 농어촌 소계 미자립 교회를 말씀 안에서 하나된 형제의 사랑으로 돕기 위해 농어촌 100교회 운동을 시작하여 2001년도에도

## 2002년도 순결서약식 확정되다

- 2002년 1월6일(주) 저녁 찬양예배 시에 -

우리교회가 혼탁한 현대의 젊은이들이 말씀 안에서 순결하게 살기를 위해 매년 초에 갖는 순결서약식의 일정이 확정되어 발표되었다.

## 12월30일(주) 은퇴식 및 장로안식년 갖는다

오는 12월 30일(주) 저녁 찬양예배 시 은퇴하시는 권사는 1931년생으로 만 70세 되신 이득이다. 또한 김태기, 정병무 두분 장로는 2002년도 일년간 안식년에 들어간다. 한편 각 전도회와 선교회 별 연령분포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본인이 소속된 전도회와 선교회를 정확히 찾아 섬길 것을 전도위원회는 당부하고 있다.

2002년 순결서약식은 3단계로 진행되어 먼저 12월 한 달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시작하고 두 번째로 12월31일 오후 7시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여 순결서약식의 의미와 순서 등을 안내받고 이어서 순결서약식에 참석하는 학생과 부모가 함께 참석하는 '학생-부모 연합기도회'를 갖게되고 세 번째로 순결서약식을 2002년 1월6일(주) 저녁 찬양예배시에 갖게된다.

이번 순결서약식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젊은이들과 부모는 각 부 지도 교역자나 사무국으로 접수를 하고 본인과 자녀들이 순결하게 살아가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이미 순결서약을 마친 성도들은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 2002년 부터 예배다부 집회시간 변경

현재 주일 12시40분에 갖는 예배다부의 집회시간이 수화교실과 중복되어 농아인을 위한 성경공부를 교회학교 시간에 맞추어 오전 10시로 변경하고 오후에는 수화교실 2개반을 운영하게 된다.

변경시간 - 성경공부-오전 10시-606호

- 수화교실-오후1시30분-603호, 609호

## 주일 오후 신앙(신학)강좌 개설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과 신학지식을 넓히기 위해 김영한 협동목사와 이만열 협동전도사가 강의하는 내년1월부터주일 오후 신앙강좌를 열어 학점제로 운영하게 된다.

## 영문비서 채용하다

담임목사의 영문업무를 도울 비서와 주부대학 영어교사의 필요 요청에 의해 Jo Dodson 여사를 채용하였다. Dodson 여사는 미국 Western Michigan대학을 졸업하고 비서직과 ESL교사의 경력을 갖고 있다.

## 영어 유치원 개설된다

우리교회가 소원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 영어어린이 유치원을 교육 1국장(오정수 장로)을 추진 위원장으로 준비하게 되었다.

추진위원은 이영기, 김사무엘, 이미리, 이지은, 하옥봉, 이태훈등이다.

## '새가정부' '신혼가정부'로 명칭 변경한다.

2002년부터신혼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새가정부가 교회에 새로 등록된 성도들의 모임인 새가족부와 용어가 혼돈 되어 자체부서의 일체감 형성에 어려움이 많아 새가정부의 명칭을 '신혼가정부'로 바꾸게 되었다

선교회(전도회)	출생연도	나 이
빌립 / 도르가	62년~72년	30세~39세
안드레 / 루디아	57년~61년	40세~44세
베드로 / 뫼뫼	52년~56년	45세~49세
바울 / 마리아	47년~51년	50세~54세
엘리아 / 에스더	42년~46년	55세~59세
모세 / 한나	37년~41년	60세~64세
아브라함/사라	36년이상	65세 이상

## 2002년도 각 위원회 및 부서 지도 교역자 결정되다

2002년도 각 위원회 및 부서를 담당할 지도 교역자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위원회 / 부서명	지도교역자	위원회 / 부서명	지도교역자
예배위원회	이성득	교회갱신연구원	김운호
찬양위원회	윤영국	성경대학	이성득
교육위원회	정운돈	경로대학	고경선
교구위원회	고경선	주부대학	윤영국
전도·선교위원회	이규정	유치원	정운돈
구제위원회	지혜영	권사회	지혜영
출판국	정운돈	스데반회	김운호
상조위원회	고경선	비전2020	이규정
인사위원회	이성득		



... 순례자 교회 사랑 캠페인 ...

†부서에서 나온 쓰레기를 화장실에 방치하지는 않았습니까?

† 여러분이 다녀오신 화장실은 깨끗했습니까?

이사야서 강해

# 고난의 종 메시아(III)

## (이사야 53장 10 - 12절)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광 보좌에서 내려와 죽는 자리에 까지 떨어졌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어 다시 아버지의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게 되었으므로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었다고 믿으시고 만족해하신 것입니다.



이중운 목사

여호와와 종이 받으신 고난은 속건제물로서 만민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이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보시고 만족하실 것입니다.

### 1. 고난의 종은 피동적 수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수동적이면서 동시에 능동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원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긍정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10절).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수동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은 예수님의 자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정죄자이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죄자가 하나님이었으므로 사죄의 방침도 하나님에게서 유래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정죄자의 뜻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짐승을 잡아서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리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죄값을 받고 매를 맞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만 인간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은 피동적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이 고난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만민 구속의 결과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혹독한 고난을 맡기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렀다"(10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영혼이 속건제물로 드려졌다고 했습니다(10절). 속건제물은 히브리어로 '아삼'이라고 읽으며 불법행위 혹은 범죄행위를 말하는데 특별히 윤리적인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 드리는 제물을 말하는데 이것은 수송아지나 비둘기로 바쳐졌습니다.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자기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 보태어 보상하는 일이 반드시 따라야 했습니다.

속건제물은 속죄제와는 다른 것입니다. 속건제물의 목적은 만족을 드리는데 있고 속죄제의 목적은 속죄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와 종은 이 두 가지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호와와 종은 먼저 속죄물이 되어서 그의 죽음이 죄를 속했고(5절), 또한 속건제물이 되어서 그의 죽음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 2.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10절).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결과 그

를 믿는 자들이 생겨남으로 그의 영적 후손은 끊기지 않을 만큼 그의 날이 길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칼빈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수가 계속 증가된다'고 주석 합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시 22:30).

교회에서 스승의 씨는 그의 제자들입니다. 바울은 오네 시모를 갠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했고(몬 10절), 고린도 교회의 개종자들에게는 자신을 아비라고 했습니다(고전 4:15). 바울과 요한은 제자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불렀고(갈 4:19, 요일 2:1, 18, 25), 주님은 제자들에게 '애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막 10:24, 요 21:4). 주님은 자신의 참 제자 중에서 '그의 후손'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예수님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졌다고 했습니다(8절). 그러한 그의 죽음이 더 오래도록 생의 조건이 되었다는 것은 지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의 날이 길어지게 됩니다. 죽으면 살리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감으로 인하여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친 후에 부활하시고 영생에 들어가셨다는 말씀(롬 6:9)은 바로 본문 10절을 해석한 것입니다.

### 3. 그의 손으로 여호와와 뜻을 성취하리로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10절).

사도행전에 보면 'by the hand of God',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왕성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여호와와 뜻이었고 그는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을 지상 생애의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요 4:34, 6:38). '그의 손으로'는 '그 방편으로'라는 뜻이며 손은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방편으로 해서 여호와와 뜻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 목적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은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다.

### 4.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수고를 보시고 만족하시심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를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11절).

하나님은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후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고난의 복된 결과를 그들에게 준 셈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형성하시고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

이 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7 - 11).

하나님은 이 사건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광 보좌에서 내려와 죽는 자리에까지 떨어졌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어 다시 아버지의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게 되었으므로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었다고 믿으시고 만족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린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예수님 오시기 8 백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예수님은 모든 일을 성취시키셨습니다.

### 5. 의로운 종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함(11절)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11절).

'자기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지식 때문에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해롭게 여겼다고 했습니다(빌 3:8, 10).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누구 신지를 알고 그 앞에서 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지식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아는 지식으로 의로운 종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한 사람은 주님께서 의롭게 하십니다. 이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메시아입니다.

### 6. 영적 승리(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묶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방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아림을 받았음이니라"(12절).

메시아는 존귀한 자, 강한 자의 나라도 정복할 것입니다.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므로 마침내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존귀한 자와 함께 묶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십니다.

이 같은 승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고난 까닭입니다. '이제'라는 이유접속사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신 사실을 밝힙니다. 범죄자 중 하나 같이 된 메시아가 범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대도해 주십니다(롬 8:34). 메시아는 승리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김성철 집사의 믿음 생활은 초등학교 2학년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간 것으로 시작되었고 이로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안의 믿음의 호주가 되었다. 그는 3년 전에 서리집사로 임명받고 종가 집임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을 설득하여 제사를 추도식으로 바꾸었고 또 집안의 마지막 불신자였던 아버지와 남동생을 위해 2년 전부터 태신자로 삼고 눈물로 기도했다. 2년 전 태신자카드를 낸 뒤부터 교회에서 이슬비전도편지를 정성껏 보내주었고 자신의 기도가 열매를 맺어 아버님께서 이번 태신자 초청잔치에 남동생과 함께 오시어 드디어 교회에 등록을 하셨다. 김성철 집사는 그 날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여러 번 말한다.

김성철 집사는 85년 양주화 집사와 결혼하여 슬하에 시원과 고운 두 딸을 두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에 종사한다. 87년부터 91년까지는 독일 필립스사에 근무했고 귀국해서는 삼성과 공동으로 반도체를 개발하는 회사에 전문경영인으로 근무한 그는 디지털 카메라의 필름을 개발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렇게 15년이 넘도록 전문경영인으로 일하던 김성철 집사는 올해 10월 27일 반도체 제조회사인 (주)시고를 창업했다. 시고(視高)란 회사명은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마음의 표현으로 그가 직접 지은 것이다. (주)시고는 주로 벽걸이 TV에 들어가는 많은 반도체 중 화면이 커지도록 하는 칩을 생산할 것이며 12월 15일 용인 공장에 입주하고 내년 봄부터 본격적인 생산



에 들어가게 되는데 (주)시고가 이 칩을 생산하게 되면 현재 국산 벽걸이 TV의 생산가가 많이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

고등학교 때는 활발한 성품으로 인해 교회에서 고등부 회장직도 맡았지만 정작 92년부터 출석한 서울교회에서는 아직까지 봉사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러워하며 올 하반기부터 차량관리부나 성가대에서 봉사하려고 한다. 그 동안 반도체 산업의 휴식시간은 1년에 20분이라는 말처럼 자신도 너무나 바쁜 생활을 해왔다.

김성철 집사는 91년쯤으로 기억되는 어느 날 자신의 믿음에 도전을 받았다. 그 동안 미지근하던 자신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며 도대체 자신의 삶이 안 믿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면서 처음으로 스스로 성경을 사서 읽기 시작했다.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지 회사 사장에게 질책을 받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가 궁금했던 모든 것이 들어있었고 성경을 읽으며 의문 났던 부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오면 이중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풀어나갔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께 너무나 사랑 받는 자라고 말한다. 처음 믿음 초등학교 때부터 자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고 지금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도 자신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이번 (주)시고를 창업할 때도 만만치 않은 자금을 코스닥 상장회사들이 개인을 믿고 투자한 것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지 또 한 번 느꼈다고 한다. 그는 이번에 회사를 창업하면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한다. 자신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가 생각한 것처럼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굳게 믿는다.

김성철 집사는 (주)시고를 창업하며 학력의 고저를 떠나 능력 있는 자들과 특별히 장애자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려고 한다. 그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봉사를 못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전도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한다.

정리 : 허숙(편집부)

## 2002년 계획, 각 위원회에게 듣는다 (1)

### 성숙한 봉사를 다짐하며

#### 최종시 장로(예배위원회 위원장)

할렐루야! 먼저 지극하신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새 예배당에 입당한지도 일년이 다 되어갑니다. 입당할 때 이 직임을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심하였지만 지나간 일년을 되돌아보면 열매 없는 일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같이 부끄럽고 게으르고 약한 모습만 드러낸 한 해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쉽 없이 교회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셨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새 예배당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갈급한 영혼을 불러 차근차근 채워주시므로 주님의 뜻대로 서울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여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헌신이 필요할 때이니 맡은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므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일에 앞장서는 예배위원으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2002년도 첫 주부터 새 예배당 전 층을 채워주시길 주님의 역사를 기도로 기다릴 것이며 예배위원 증원과 교육을 철저히 준비하여 예배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봉사하는 모습을 바꾸어 가겠습니다. 주님처럼 사랑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을 따라 최상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치는 예배위원들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봉사자(예배안내(세례교인), 헌금위원(집사))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절약은 헌금하는 것입니다.

#### 하영수 장로(관리위원회 위원장)

우리 서울교회 새 예배당의 나이가 이제 두 살로 접어들다.

이제 지난 1년간 우리교회의 살림을 뒤돌아 볼 때 새 예배당의 유지비용을 보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사용료(냉-난방용), 수도요금, 화장지 등 우리가 절약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휴지 1장의 가격이 19원이랍니다. 거의 모든 성도가 손을 씻는데 2장을 사용하는데 손수건을 사용하거나 1장만 쓴다면 비용은 반으로 줄 것입니다.

철야기도나 소그룹 집회시 필요이상의 과다 조명을 사용하거나 화장실의 불을 밝혀두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꼭 필요시에만 전원을 켭시다.

손을 씻거나 세수할 때도 약하게 틀어서 물을 받아서 사용하면 현재 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더욱 절약하여야 할 것은 식사입니다. 매주일 마다 점심 식사시간에 식기를 반납하시는 것을 보면 많은 양의 음식이 남겨져 버려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3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꼭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식사를 합시다.

이렇게 내가 절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실천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언젠가 교회에 손님이 오셨을 때 예배당이 아름다

고 보기를 원하셔서 담임 목사님이 직접 안내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밤 늦게 모임을 가진 부서에 빵이며 각종 음료수와 휴지 등이 어지러이 널려있는 것을 보게된 것입니다.

교회 건물내에 과자 부스러기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적은 양의 음식 찌꺼기가 있어도 개미나 바퀴 등의 벌레가 들어오고 그 해충은 번식을 하고 그것을 잡아 먹으러 다른 벌레가 들어오는 먹이 사슬이 형성되면 박멸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청결만이 우리의 건강을 지킬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스런 아이들에게 청소와 청결의 습관을 올바르게 길러주어 자신의 건강을 바르게 지킬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손으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헌신임을 우리모두가 알고 있지않습니까? 우리모두 내 몸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껴야 할 것입니다.

#### 알림

교회 앞을 지나는 순환

버스 신설운행우리 교회 앞을 지나

는 415번 순환버스가 신설되어 지난 11월

22일(목)부터 운행되고 있다. 415번 버스의 운

행노선은 개포시영아파트 → 숙명여고 → 도곡역

→ 대치역 → 서울교회 → 대치우성3차아파트 →

휘문고 → 삼성역 →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 →

무역센터이다.

415번 버스는 매일 새벽 05:00부터 밤

23:10까지 10~11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요금은 600원으로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다.

### 힘들 때 잡아 줄 따스한 손길이 많아요 조대영 전도사(유아부 지도)

교회설립 때부터 교회학교와 관련 되어 달려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교회학교의 부흥이라는 소망과 함께 수많은 아이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상상하면서 한 주도 빠짐없이 지내온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날마다 변함없는 진리를 나누는 일에 남은 시간들을 드리고 싶었기에 학교 교사 생활을 접어두고 신학대학원에서 3년간의 신학수학을 하였습니다. 뒤이어 기독교교육학을 공부하기 위해 쉴 틈 없이 책과 씨름을 하면서 찾아온 피로감을 가볍게 여긴 것이 화근이 되었나 봅니다. 여름 감기는 뭐든 안 걸린다는데 서서히 감기 기운은 마침내 기관지염과 부비동염 그리고 마침내 폐로 옮겨가지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항생제와 소염제 등을 계속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 증세가 의심스러워 자세한 검사를 했는데 여기저기에 고장난 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병에 대한 두려움보다 감사가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저기에 생겨난 질병의 몸을 안고 뭐가 모르는 감

사가 생겨났습니다. 여름 수련회에 맡은 여러 가지 순서를 기억하면서 이왕에 수술대에 오르게 된다면 이것들을 다 마치고 하리라. 약속한 순서들을 모두 마친 후 긴장이 풀어지면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내일이 주일인데 주일 지나고 월요일에 병원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담당의사는 당장에 입원을 하여야 한다 시며 토요일에 나오셔서 여기 저기 꼼꼼히 챙겨 주셨습니다. 유아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얼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내가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입원한 병원 8층에 올라가 서울교회의 빨간 십자가 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동안 자란 종양의 크기로 봐서 개복수술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쉽지가 않는데 김침 증세를 먼저 가라앉히고 며칠 후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장기 일부를 들어내야 한다는 말에 잠시 침울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바로 여기저기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역시 기도의 힘은 수술결과를 좋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질병은 죄 때문이고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님을 잘 알기에 힘든 가운데서 죄용서와 감사의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 다른 병명들이 밝혀지고 또 한 번 수술을 받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 수술도 받지 못하고 포기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몇 번이고 수술 받을 수 있는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덜 나았지만 잘 가시라는 주치의의 인사를 뒤로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보내주신 쾌유를 기원하는 화분은 병상 앞에서 말없이 전도하고 있었고 병실에서 이어지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야기는 여러 명의 결신을 얻어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유아부 태현이가 보내준 전보, 사랑부의 김용훈 학생과 선생님들의 손길, 청년부의 자매들이 수줍게 내밀고 간 사랑의 마음, 좋은 책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신 손길들, 몇번이고 찾아와 격려해 주신 여전도회원들과 권사회 여러 권사님들, 뭇 먹으면 회복이 될까하여 챙겨 주신 손길과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부끄러운 죄인에게 들려온 격려의 말씀들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들려지고 하나님은 좀더 많은 인내를 요구하시고 한 단계 뛰어 넘는 신앙의 진보를 기대하시고 계셨습니다.

그 동안 잡아준 수많은 믿음의 식구들의 손길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우리교회에는 힘들 때 잡아줄 수많은 따스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먼 훗날 함께 나눌 은혜들을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습니다.

## 2020년까지 국민의 75%를 주게로" 오공환집사(비전2020본부위원)

매년 220,000명의 군부대 진중세례를 통해 본인과 그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2020년까지는 국민의 75%인 3700 만 명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목표가 비전 2020운동이다. 이종운 목사님께서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전국 군선교 비전2020실천운동위원장으로 신학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군부대 진중 세례를 지원하기 시작하는데 6년이 지나고 있다.

지난 12월 1일(토)은 서울교회가 설립되고 3번이나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던 삼척의 자매부대 진중세례식이 있었다. 이 진중세례식을 지원하기 위해 당일 새벽 기도 후 서울교회 비전2020본부 위원장 이반생 장로님의 인솔하에 20여명 본부 위원 및 장로님들이 삼척을 향해 출발하여 이틀전 개통한 대관령 터널을 통과해 사단 등대교회에 도착하였다.

부대정문을 지나 조금 들어가니 높은 위치에 커다란 붉은 벽돌 건물에 큰 십자가가 걸려있는 교회가 눈에 들어 왔다. 이반생 장로님이 사단장으로 봉직하실 때에 장로님과 등대교회 및 서울교회가 기도와 헌금으로 건축한 의미 있는 교회당인 것이다. 점심 식사 후 이곳에서 사단 신병교육중인 장병 270명이 정운돈 목사님과 사단 양계준 목사님 연대목사님 인근 해군부대 목사님의 집례와 서울

교회 4분의 장로님의 수종으로 진중세례가 행하여졌다. 노랑머리, 긴 머리 다 자르고 짧은 머리에 그늘린 얼굴 그 가운데 검게 빛나는 눈동자들... 넓은 교회당에 3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내뿜는 열기로 훈훈한 가운데 초롱초롱한 눈동자들은 "이 친한 몸 세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하는 결연한 믿음으로 270명의 장병들이 열을 지어 무릎을 꿇고 물세례를 받는 광경은 이들이 신앙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위로 받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국도방위를 철저히 할 것과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여 투철한 신앙인으로서 민족복음화의 역군이 되어 비전2020목표를 이룰 것을 확신하게 해주기에 충분하였다.

우리교회에서는 군선교를 위해 매일 3사단과 23사단 진중세례를 후원하고 있으며, 매년 육군사관학교 세례식을 주관하고, 군인 교회 건축지원, 군복 교육과 군선교 지원, 각 군부대에서 세례를 받은 미래교인(우리교회 인근

에 주소를 둔 장병)과 우리교회에서 파송한 군선교사(우리교회인으로 군에 입대한 장병)에게 매주 위문편지와 주보, 순례자 등 소식지를 보내주고 있으며, 자매부대를 방문위문하고, 지원부대 장병들을 초청하여 위로하는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군에서 세례 받은 미래교인과 우리교인과 개인적인 후원을 결연하여 지속적인 기도와 등록, 편지, 선물, 부대 및 가정심방, 초청, 영접 등 사랑의 10대 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군선교의 결실을 거두어들이 것이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동정

- 이종운 목사는 9일(주) 오후 임마누엘교회 신인현목사 원로추대예배를 집례하고 설교한다.
- 득남 12월 1일 원소저,우태균성도 (1교구)
- 김은희 (교구,청년부) 선생은 13일(목)작품전을 열고 감사예배를 드린다.
- 본당 성탄트리장식 - 박현주(청년부)

### ☞ 금주의 식사제공: 손재검 권사 김아중 집사,가정 손자 김정운의 생일감사

###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K 1188KHz)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주일 설교



## 서울 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임마누엘의 삶되게 하소서
2. 새로 임명될 2002년도 일꾼들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사백기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약도 :

